문화

소소한 일상의 깨달음 禪카툰으로 전해주고 싶어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

간결한 문구와 그림으로 깨달음을 주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는 불교 교리를 만화로 풀어내며 11년간 독자들을 만나왔다. 사진=박재완 기자

"삶에서 느낀 것들을 불교교리와 결합해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독자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죠."

간결한 문구와 그림으로 깨달음을 주는 명상카툰 작가 배종훈 씨는 불교 교리를 만화로 풀어내며 11년간 독자들을 만나왔다. 그간 배 씨가 불교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명상 카툰은 900 여 컷. 또한 명상 카툰집 〈내 마음의 죽비소리〉 〈자네 밥은 먹었는가〉 등을 출간했고 폐사지에서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김윤희(맑은소리 맑은 나라 대표) 씨가 글을 쓴 〈폐사지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 등도 펴냈다. 여기에 '카툰 선을 만나다' 展 등 5회의 개인 전시를 열며 지난 10여 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의 본업이 교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성과들이 녹록지 않은 결과물임에 분명하다. 국어 선생님도 화가도 어린시절부터 모두 그가 꿈꾸었던 직업이라고. 그는 욕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국어교사인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유사〉를 읽으면서부터다. 이후 사찰 구석구석을 찾아다녔고, 폐사지를 여행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사진으로 남겨 그림으로 풀어냈다. 또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틈틈이 좋은 문구들을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준비된 작가였던 그는 2002년 겨울 〈월간 불광〉 독자투고란에 카툰 한 점을 보내면서 명상카툰 작가라는 직함을 갖게 된다.

"처음부터 카툰을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림에 이야기를 담으면 전달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도해 봤는데 연재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2003년부터 명상카툰을 연재하게 됐죠."

카툰 작가로 첫걸음을 뗀 그는 이후 본지를 비롯해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불교신문〉 등 교계 매체와 꾸준히 인연을 맺으면서 명상카툰과 삽화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교리 면에 들어가는 삽화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야 하니 매주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불교 공부가 많이 되죠. 이 과정들이 명상카툰을 그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900여 작품 발표
4월 경 일본 전시 계획도

그림 그리기와 교사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법한데 그는 노력을 기울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 시간을 쪼개 여행을 다니고 독서를 하며 창작의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정작 그가 힘들었던 부분은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제 그림을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길이 없었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답답했죠.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페이스북(www.facebook.com/jh.bae.963)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배 씨는 현재 11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서는 불교 카툰 이외에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가 오랫동안 팬이었던 故 김광석 노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그간의 작품 중 180여 점을 선정해 책으로 엮은 〈행복한 명상카툰〉을 2월 말 출간하는 것은 물론, 3월 6일~9일 붓다아트페스티벌 만화전의 초대작가로, 또 4월에는 일본에서의 초대전시도 갖는다. 배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많은 이들에게 소소한 깨달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면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제 그림이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배종훈 작가는 사찰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오고 있다. '상원사' 일러스트.

'삶이 수행' 명상카툰

화려한 풍경 너머로 느끼는 삶의 애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⑨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

조선중기 선비들은 깊은 숲 속에 위치한 봉은사를 찾아와 시흥을 즐겼다. 지금은 빌딩숲의 전법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절집의 봄날 떠돌이의 슬픔

삼당시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시인은 손곡(蓀谷) 이달이다. 그는 서얼출신이었기에 당초 벼슬길에 나갈 생각조차 접었으며, 그 신분적 한계로부터 오는 비애를 안고 평생을 떠돌았다. 이달은 자식도 없이 떠돌다 평양의 어느 여관에 얹혀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초라하지 않았다. 제자 허균(許筠)이 그의 유작을 모아 〈손곡집〉을 편찬하고 서문에서 스승의 생애와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손곡옹(蓀谷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두보(杜甫)와 소동파(蘇東坡)를 호음(湖陰)에게서 배웠다. 그 읊고 읊조린 것이 이미 웅대하고 치밀하였으나 최경창과 백광훈을 사귀게 되자 배움의 허술함을 깨닫고 진땀이 흘러내리므로 그간 배운 바를 모두 버리고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의 시는 공봉(供奉, 이백(李白)을 가리킴)에 근본을 두었고 우승(右丞, 왕유(王維)를 가리킴)과 수주(隨州, 유장경(劉長卿)을 가리킴)를 드나들어 기운이 따사롭고 지취가 뛰어나며 빛이 곱고 말이 담담하며 그 곱기는 남위(南威, 춘추 시대의 미녀)와 서시(西施)가 성복(盛服)하고 밝은 화장을 한 듯하고, 그 온화함은 봄볕이 온갖 풀을 덮는 듯하며, 그 맑음은 서리 같은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흐르는 듯하고, 그 울림의 통량함은 마치 높은 하늘에서 학 타고 피리 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듯하며(중략) 우리나라 여럿 이름난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려져 90리나 물러설 것이다. (허균 〈손곡집〉 서문)

허균은 또 이달의 전기 〈손곡산인전〉에서도 스승의 문학을 "맑고도 새로웠고, 아담하고도 고왔다[淸新雅麗]"고 찬탄했다. 불운을 안고 떠도는 사람의 심성이 왜곡되거나 반항적으로 길들여졌다면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달의 경우, 타고난 시적 재능과 감수성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운명 속에서도 '따사롭고 빛 고운' 시들로 표출되며 세상을 보듬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역경운 운명을 청신아려한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은 재주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로 삶을 완성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동호정도잠경과(東湖停棹暫經過)
양류유유수안사(楊柳悠悠水岸斜)
병객고주명월재(病客孤舟明月在)
노승심원락화다(老僧深院落花多)
귀심암암련방초(歸心黯黯連芳草)
향로초초격원파(鄕路超超隔遠波)
독좌계정운해외(獨坐計程雲海外)
불감서일청제아(不堪西日聽啼鴉)

동호에 배 멈추고 잠시 들렀더니
버들가지 하늘하늘 강 언덕에 비껴있네.
병든 나그네 실은 외로운 배에 밝은
달이 떠있는데
늙은 스님 계신 깊은 절에 떨어진 꽃잎
많구나.
돌아갈 마음 어둑하게 고운 풀에 이어지고
고향 길 까마득히 먼 물길에 막혀 있네.
홀로 앉아 구름바다 넘어 갈 길을
헤아리니
서산의 해에 우는 갈가마귀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이달 '연상인의 시축에 쓰다' 〈손곡집〉

이달이 성연 스님에게 써준 시다. 성연 스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달 백광훈 등과 깊이 교류하던 봉은사 스님이다. 시인이 동호에서 배를 타고 봉은사로 가는 시점은 버들이 늘어지고 꽃들도 만발한 봄날이다. 그렇게 좋은날이지만 시인은 슬픔에 젖는다.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떠돌이 신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외로운 배 위에 떠 있는 달에 비유한 시인은 지는 꽃 속에 한가로운 노승을 대비시켜 슬픔을 더욱 확장한다. 그리고 저물녘 갈가마귀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탄식으로 비감을 극대화한다. 슬프다.

이달이 봉은사에서 누리는 봄날의 서정은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 너머로 느끼는 삶의 애환이다.

출곽도강소(出郭渡江少)
소년다왕래(少年多往來)
매휴최백배(每携崔白輩)
승원과시재(僧院課詩才)
구우조령진(舊友凋零盡)
유년차제최(流年次第催)
침음의주구(沈吟倚柱久)
서일하생대(西日下生臺)

성곽을 나서 강을 건너니
젊은이들 왕래가 많구나.
매번 최씨와 백씨와 더불어
절집에서 시재를 겨루었지.
옛 벗은 다 떠나고
흐르는 세월은 점점 재촉하네.
침통히 읊조리며 기둥에 한참
기대어 있으니
서녘 해가 생대에 지는구나.
–이달 '동호의 절에서…' 〈손곡집〉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최경창과 백광훈이 세상을 떠난 뒤에 지은 작품이다. 제목은 '동호의 절에서 스님의 시축을 보니 최와 백의 시가 있어 서글퍼져서 시를 지어 준다(湖寺見僧軸有崔白詩愴懷有贈)'이다. 봉은사에 가서 스님의 시축을 보고, 거기 먼저 생을 마친 두 글벗의 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개가 무량하고 서글픈 생각이 솟아 시 한수를 적어 시축에 보탠 것이다.

이달의 봉은사 인연은 최경창 백광훈과의 어울림으로 절정을 이루었기에 그들이 떠난 뒤의 봉은사는 침통한 회한일 뿐이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따뜻하다. 흐르는 시간, 바뀌어가는 세상,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어서 더욱 애잔하게 읽히는지도 모르겠다.

제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교육부장 상 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삼 보 양 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출시예정 11만원)
②돈타레홈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 2BOX이상 구입 시 그을음 없고 무향, 고급향 1SET 무료증정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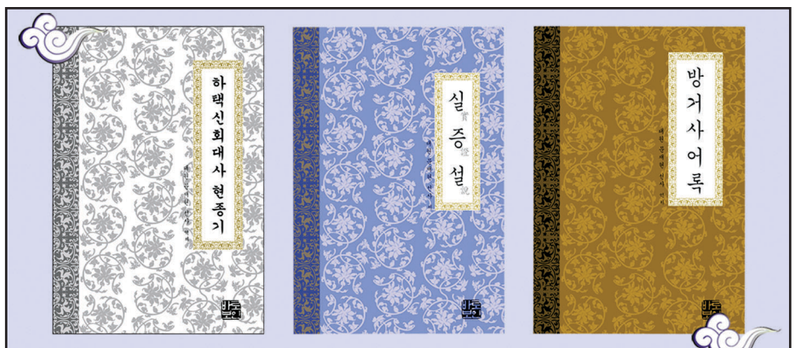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 원 사 주지 도명 합장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
031-534-3373